



전망

'95년도 낙농육우산업 전망

김 남 용
본회 전무이사

1. 머릿말

과거 우리가 들어보지 못하였던 말들 즉 BOP졸업, UR협상, GATT규정, WTO의 탄생 등 지난 수년간 우리들을 괴롭혔던 말들이다. BOP졸업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세계 여러나라에 약속하였던 개방이 '97년 7월까지라고 하여 그간에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야단법석을 하였으나 그것이 이미 여러 품목은 '94년 이전에 개방한 것도 있으며 많은 유제품은 금년에 개방된다.

쇠고기와 생우는 2001년에 완전개방하는 그 이전에는 쇠고기는 쿼타량에 의하여 수입하고 생우는 종우로서 최소물량으로 수입토록 되었다. 수입개방 전에 국제경쟁력을 갖춘다고 농촌에 42조원이 투입된다. 농특세 15조원이 추가투입된다고 하였지만 지금까지 경쟁력향상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느냐고 반문하였을 때 시원한 대답을 할 수는 없다. 양축가들이 항시 건의, 진정한 사료부가세의 영세율적용도 되지 않았으며 축산물가공처리허가권, 마사회 운영권도 농림수산부로 환원되지 않고 있다.

금년에 치즈를 비롯한 많은 유제품이 수입개방되는 데도 그 영향이 어느정도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보고도 없는 상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도 실효성 있는 것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다. 금년을 지내면서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 대처한다는 그런 정도다. 개방예시를 하였고 많은 쇠고기와 유제품이 수입되고 있음에도 쇠고기수출국들은 더 많은 쇠고기를 그리고 더 많은 부가가치가 높은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압력을 계속 가하고 있으며 EU에서도 유제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키 위한 압력을 가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하여 놓은 상태다. 아프리카 사막지대에서 먹을 것을 놓고 온갖 짐승들이 달려드는 그런 추한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낙농육우산업 그리고 낙농가, 한우농가들이 살아남기 위한 노력은 정부는 물론이지만 우리양축가 자신들도 그 어느 해 보다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한해로 낙농육우 모두 상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겠으나 하반기부터는 어두운 그림자들이 낙농육우산업에 서서히 밀어닥칠 것이 예견된다.

2. 한육우산업의 전망

금년도의 한육우산업의 전망은 현 상황이 상반기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에 들어서서는 다소 현 상황이 흔들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94년 9월 현재의 한육우의 총 두수는 2백46만두이며 그중 가임암소는 1백10만4천두에 이르고 있다. 한육우 중에 젖소 수소가 약 20만두가 되므로 순수한 한우는 2백26만두 정도가 될 것이며 젖소 55만7천두를 합하면 전체 소는 3백1만7천두가 된다. 일부에서는 소 증가가 전년동기대비 5.7%나 증가하였으므로 소 파동이 우려된다고도 하나 80년대의 소파동은 쇠고기의 소비가 많지 않았을 때이고 현재의 쇠고기소비는 그 당시와 비교가 안될 정도이므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도 쇠고기 수입쿼터 10만6천에 부족하여 추가로 2만톤이 수입되었으며 금년도의 쿼터물량 12만3천톤만 수입된다면 국내산 쇠고기의 수요는 늘어날 것이며 이에따라 가격의 변동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94년 12월 1일자로 배합사료 가격이 4~5%로 인상하였는데 이 4~5% 인상으로도 문제가 있다 하여 금년 중에 또 사료가격을 인상하겠다는 것이 사료업계의 반응이고 보니 그만큼 한육우농가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

소값이 큰 변동이 없으리라고 보는 것은 금년도의 일반경기가 지난해와 별차이가 없다고 보는 경제계의 전망이고 보니 당연히 쇠고기의 소비도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도시근교의 식당, 즉 "가든"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가든에서는 한결같이 쇠고기를 취급하고 있고 또 쇠고기 중에서도 한우육을 주로 취급하고 있어 국내산 쇠고기의 수요는 계속 증가 하리라고 보는 점, 현재 한우고기의 선호는 일종의 "붐"으로 한우고기를 취급하여야 유명 백화점, 유명 슈퍼가 되고 한우고기를 판매하여야 근대, 현대화된 정육점으로 취급되고, 한우고기를 사다 먹어야 일등국민이 되고 한우고기 요리할 하여야 식당으로서 유명도가 인정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일종의 "붐"이라고 할 수 있다. 한우고기를 식별도 못하고 한우고기의 맛도 모르면서 한우고기를 찾는다는 것은 일종의 바람인 것이다. 이 바람이 상반기까지는 계속



냉장육이 수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쇠고기의 냉장육 유통기한은 우리나라는 14일로 되었다. 냉장상태에서 그 이상이 경과되면 쇠고기가 변질되어 식용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압력을 해오고 있는 것은 진공포장 한 것의 유통기한을 100일로 연장하여 달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쇠고기는 냉장상태에서 유통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쇠고기를 논하는 사람은 한결같이 냉장육 유통을 강조하고 있다.



되고 하반기에도 이 바람은 약간의 기가 꺾기기는 하나 큰 변화는 없으리라고 본다. 더욱 호주산 수입쇠고기의 농약중독문제가 야기되었던 것은 국내산 쇠고기의 수요를 더 선호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하반기에 가서 약간 상반기 보다 못하게 되리라고 보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첫째, 냉장육이 수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쇠고기의 냉장육 유통기한은 우리나라는 14일로 되었다. 냉장상태에서 그 이상이 경과되면 쇠고기가 변질되어 식용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압력을 해오고 있는 것은 진공포장 한 것의 유통기한을 100일로 연장하여 달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쇠고기는 냉장상태에서 유통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쇠고기를 논하는 사람은 한결같이 냉장육 유통을 강조하고 있다. 축협외의 대부분의 매장에서는 냉장육이 되고 있다. 그런데 국내 냉장육의 유통기한을 100일로 연장을 하게되면 수입육의 냉장육이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곳은 축협등 극히 일부에 국한되도 대부분의 정육점은 취급물량도 많지 않고 또 냉장시설을 하기에도 장소의 협소, 비용문제로 쉽게 냉장육판매시설로 변경시키기가 어렵고 냉장육은 냉장상태로 유통되므로 도살을 하여 소비자 손에 들어갈 때까지 위생적으로 취급이 되지 않으면 쉽게 부패되는데 우리나라의 현 여건은 도살장의 시설도 위생

면에서는 불합격상태이고 도살장에서 부터 소매점에 이르기까지 쇠고기의 취급자들이 위생적이어야 하는데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냉장육의 유통을 위하여 현재의 냉장육유통기한을 연장하여 준다면 그것은 순전히 외국산 쇠고기의 국내 냉장유통을 위한 조치에 불리하게 된다.

일본은 수입육의 60%가 냉장육이며 이 냉장육이 수입유통되면서 일본인들이 자랑으로 여겼으며 제어 무리 좋은 외국산 쇠고기가 싸게 수입되어 공급된다고 하여도 일본의 화우육은 계속 경쟁력을 유지한다고 자신만만하게 주장하였으나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외국산의 냉장육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국내산 쇠고기는 축협등 극히 일부의 매장에서만 판매된다면 많은 소비자들은 국내산 쇠고기는 냉동육을 구매 이용하게 되고 수입고기는 냉장육을 구입하게 되고 냉장육에 익숙하여지면 냉동육을 기피하고 냉장육선호로 급 선화가 될 수도 있다. 결국은 국내산 쇠고기를 기피하고 외국산 냉장육을 선호케하여 수입육의 확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결국은 냉장육의 유통은 국내산쇠고기의 소비를 둔화시키고 수입육의 소비를 증대시키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즉 한우산업을 불투명하게, 경쟁력이 없도록

하게 될 것이다.

둘째. 쿼타물량의 증대 SBS 물량의 증가와 이에 부과하는 부과금(mark up)의 감소가 부담스럽다. 금년의 쇠고기수입쿼타물량은 12만3천톤으로 지난해 10만6천톤보다 16.0%가 증가한 물량이다. SBS물량은 쿼타량비 30%로 지난해 20%보다 10% 물량이 증가하였으며 부과금(mark up)이 지난해 95%가 70%로 25% 낮아졌다. '93년까지는 축협, 한국냉장, 관광호텔용품센터의 3개소였으나 '94년 1월부터 한국육가공협회, 요식업중앙회, '94년 10월부터 한국슈퍼체인협회가 참여하였으며 금년에는 수입쇠고기 전문점도 참여키로 되어있다. 한국육가공협회를 SBS업체를 참여케하라는 압력때문에 승락하였더니 그 다음에는 포장육을 만들어 팔도록 하여 달라는 압력에 굴복하여 500g, 1kg 포장을 하여 판매토록 하였는데 이제는 포장육의 중량제한 철폐를 요구하여서 그것도 지난해 6월 해제하여 주었다. 지난해 1월 20일 미국에서는 생축수입문제협의회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축수입협의회에서 2001년 완전개방하는 것으로 결론되었다. 그 전까지는 중우명목으로 최소수량인 '94년 640두를 필두로 계속 증량하여 2005년 1067두는 무세

쇠고기 UR 협상 결과

| 연도 | 쿼 타 | | 관 세 | SBS | | | | 쿼타-SBS |
|--------|-------|------|------|---------|---------|------|---------|--------|
| | 물 량 | 전년비 | | 쿼 타 량 비 | 물 량 | 전년비 | Mark-up | |
| | 천 M/T | % | % | % | M/T | % | % | M/T |
| 1993 | 99 | | 20 | 15 | 14,850 | | 100 | 84,150 |
| 1994 | 106 | 7.0 | 20 | 20 | 21,200 | 42.7 | 95 | 84,800 |
| 1995 | 123 | 16.0 | 43.6 | 30 | 36,900 | 74.0 | 70 | 96,100 |
| 1996 | 147 | 19.5 | 43.2 | 40 | 58,800 | 59.3 | 60 | 88,200 |
| 1997 | 167 | 13.6 | 42.8 | 50 | 83,500 | 42.0 | 40 | 83,500 |
| 1998 | 187 | 12.0 | 42.4 | 60 | 111,200 | 34.0 | 20 | 74,800 |
| 1999 | 206 | 10.2 | 42.0 | 70 | 144,200 | 28.5 | 10 | 61,800 |
| 2000 | 225 | 9.2 | 41.6 | 70 | 157,500 | 9.2 | 0 | 67,500 |
| 2001 | | | 41.1 | | | | | |
| 2002 | | | 40.8 | | | | | |
| 2003 | | | 40.4 | | | | | |
| 2004이후 | | | 40.0 | | | | | |

- 1997년 7월부터 쇠고기 육포는 관세를 30%, 식용설육은 20%로 수입자유화
- 일반 생우는 2000년까지 수입제한을 유지하되 쿼타는 인정하지 않다가 2001년에 관세 41.2%로 수입자유화
- 중우는 1995년부터 관세를 높여 수입자유화 하되 현행 세율 0%로 최소시장 접근허용
관세 : (1995) 98→(2004) 89.1%
최소시장접근물량 : (199) 640두→(2004) 1,067두

로 수입토록 되었다. 640두는 최소몰량이다. 정부의 개입없이 수입토록 되어 잘못하다가는 640두를 추가하여 수입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금년에 또 어떤 조건을 제시하여 올 것인가가 우려된다.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도 관철이 되지 않으면 301조를 들고 나오고 있으며 우리 축산인들이 느끼기에는 301조만 들먹이면 우리나라는 두손을 들곤하여 미국에서는 이 약점을 이용하여 야금야금 우리의 쇠고기시장의 목을 조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육우산업은 금년 상반기는 '94년과 별다른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며 하반기는 이 여러가지 여건으로 인하여 약간 가격이 하락하는 등 전반기만은 못할 것이 예견된다.

3. 낙농산업의 전망

'90년부터 현재까지 원유생산량 보다 우유소비량이 많아서 원유부족상태가 계속되었다. 원유가 부족하였

다는 것은 낙농가에게는 유리하였던 것으로 낙농경기가 좋았다고 단적으로 말 할 수 있다. '94년 7월, 즉 지난해 7월 원유가 잉여상태로 접어들다가 흑독한 더위로 인하여 유량이 감소되고 또 많은 젖소들이 폐사하면서 원유부족이 계속되었다.

금년에도 일부에서는 원유가 계속하여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상반기는 모르더라도 하반기에는 원유의 잉여상태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지난해의 소에게 준 충격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겠느냐는 것에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원유수급에도 일치된 의견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금년부터 많은 유제품들이 수입되므로 하반기에는 부족현상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들이다.

농림수산부에서 잠정적으로 추산한 '95년 우유수급 계획을 보면 다음표와 같다.

| 구 분 | 공 | | 급 (A) | | 소 비(B) | 재 고(B-A) |
|------------|------|-------------|-------|-------|--------------|----------|
| | 이 월 | 생 산 | 수 입 | 계 | | |
| '94 실적(잠정) | 45천톤 | 1,920(3.3%) | 135 | 2,100 | 2,075(4.6%) | 25 |
| '95계획 | 25 | 2,024(5.4%) | 283 | 2,332 | 2,312(11.4%) | 20 |

※ ()내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이 표는 '95년도 우유수급관련 협의회의 자료로 추정된 수치이므로 조정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많은 의견들이 우유생산도 전년대비 5.4% 증가는 많은 것이 아니냐는 것과 우유소비는 두자리 수인 11.4%로 근년에 우유소비증가는 전년대비 3~4%에 비하면 과대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었다. '94년도 더위로 우유소비증가가 많았던 해도 전년대비 약 5%에 불과하였다.

'95년도에 수입되는 유제품을 보자. 치즈는 관세 40%로 완전개방이다. 관세 40%만 물면 어느 누구든지 물량의 제한을 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다. '93년도의 실적을 보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약 6% 이상이 치즈원료로 소비되었다. 자연치즈를 수입하면 국내산가격의 1/2 수준이다. 우유함유조제품(우유성분 80% 이상인 것들)도 관세 40%로 수입자유화된다. 이 조제품은 전지, 탈지분유를 원료로 사용하던 것들을 대체할 수 있다. 제과, 제빵, 요구르트, 가공우유 등등으로 전지, 탈지분유의 그간의 소비는 국내산

원유의 약 7%였고, 요구르트는 3%였다. 전지분유의 탈지분유도 WTO 출범과 동시 관세 220%로 자유화된다. 관세를 220% 부과하여도 국내산 보다 kg당 1~2천원이 싸다. 그러므로 국내산 탈지, 전지분유의 시장도 소멸된다. 아기용 조제분유도 40%의 관세로 자유화된다. 여기에 투입되던 원유는 국내산 원유의 3% 정도였다. 물론 국내산 조제분유의 질이 인정되고 있어 어느 정도가 외제로 대체될지는 의문이지만 이것도 무시할 수 없다. 아이스크림믹스는 이미 관세 8%로 개방되었으며 코코아조제품(우유성분 80% 정도의 것)도 관세 8%로 개방되어 계속 그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다. 시유는 개방되었으나 아직은 수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외국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멸균유의 유통기한을 현재의 7주를 외국 주장대로 8개월로 하면 외국산 멸균유가 우리 시장을 잠식할 것이고 8개월까지는 연장하지 않더라도 2개월 이상으로 연장되면 외국의 시유가 국내시장에 상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된다. 또 환원우유도 탈지분유를 관세

220%로, 버터오일을 관세 99%를 부과하고 수입하여 제조하였을지는 시장성이 없으나 우유조제품으로 물만 가하면 가능한 것으로 수입한다면 시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또한 우리의 시유시장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상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우리나라의 낙농산업에 주름살을 주게됨은 틀림없다. 원유의 과부족상황이 반복되던 우리나라의 낙농업계가 앞으로는 우유의 부족상황은 유제품의 수입으로 채워지고 국내생산우유는 유제품의 수입으로 잉여만이 계속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우리나라의 낙농산업도 탄탄대로를 걸어오던 것에서 곡예사가 한가닥 줄을 타는 그런 상황으로 변하였다. 떨어질 듯 떨어질 듯 하면서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인 일이다.

집유일원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제품이 수입자유화 되었다. 이제부터는 대부분의 유업체에서는 낙농가를 셋으로 구분하게 된다. “꼭 있어야 할 목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목장” “있어서는 안되는 목장”

“집유일원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제품이 수입자유화 되었다. 이제부터는 대부분의 유업체에서는 낙농가를 셋으로 구분하게 된다. “꼭 있어야 할 목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목장” “있어서는 안되는 목장”이다. 있어야 할 목장은 대규모목장이다. 원유대를 더 주게된다. 있어도 그만인 목장은 중규모의 목장으로 현재의 원유대가 적용된다. 문제는 있어서는 안되는 영세목장이다. 유업체로 남유하기를 바라는 층의 목장으로 여려가지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있어서는 안되는 목장”이다. 있어야 할 목장은 대규모목장이다. 원유대를 더 주게된다. 있어도 그만인 목장은 중규모의 목장으로 현재의 원유대가 적용된다. 문제는 있어서는 안되는 영세목장이다. 유업체로 남유하기를 바

유제품 UR 협상 결과

| 품 목 (수) | 자유화 시기 | 관세 | | 수입쿼타(MMA, CMA) | | | |
|---------------|-------------|------|------|----------------|------|--------|--------|
| | | 현행 % | 1995 | 2004 | 1995 | 2004 | |
| 제품 한목 | 치즈 (5) | 1995 | 40 | 40 | 36 | - | - |
| | 조분유 (1) | 1995 | 40 | 40 | 36 | - | - |
| | 우유합유조제품 (1) | 1995 | 40 | 40 | 36 | - | - |
| | 유장분말 (2) | 1995 | 20 | 99 | 49.5 | 23,000 | 54,233 |
| | 탈지분유 (3) | 1995 | 20 | 220 | 176 | 621 | 1,034 |
| | 전지분유 (3) | 1995 | 40 | 220 | 176 | 344 | 573 |
| | 버터 (2) | 1996 | 40 | 99 | 89 | 250 | 420 |
| | 연유 (4) | 1996 | 40 | 99 | 89 | 78 | 130 |
| | 유당 (1) | 1996 | 20 | 99 | 49.5 | 5,640 | 9,400 |
| | 버터밀크 (1) | 1996 | 40 | 99 | 89 | - | - |
| 소계 (23) | | | | | | | |
| 기 AA 품목 | 시유 (3) | | 40 | 40 | 36 | | |
| | 발효유 (5) | | 40 | 40 | 36 | | |
| | 커드 (1) | | 40 | 40 | 36 | | |
| | 기타 (2) | | 40 | 40 | 36 | | |
| | 소계 (11) | | | | | | |
| 합계 (34) | | | | | | | |

(주) 1. 우유합유 조제품은 분유(탈지, 전지) 또는 유장분말 등에 밀가루, 쌀가루, 코코아가루와 같은 식품물을 섞은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생산유아용 이유식과 비슷하며, 아이스크림의 원료로도 사용될 수 있음.
2. 유장분말은 치즈제조시의 부산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생산되지 않고 있어 전량(년간 2만톤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조제품유와 가축용대용유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음.

라는 층의 목장으로 여러가지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런 목장을 위하여 낙진법을 개정하여 집유일원화를 꾀하였으나 일부 농가의 법개정 반대로 낙진법이 계속 잠자고 있다. 낙농가들 스스로 택한 길이니 할 수 없다. 불이익을 당하면서 납유하거나 납유처를 옮겨보는데 조합체가 아니면 마찬가지다.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하게 된다. 영세낙농가들은 규모를 확대하여 최소한 있어도 그만인 목장이 되던가 아니면 폐업을 하여야 한다.

쇠고기값도 상반기까지는 좋고 후반기에 약간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고 하였다. 젓소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놓지 않는 한 젓소고기의 값, 결국은 폐우와 수소값은 한우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값이 하락하여 경영여건을 더욱 어렵게 한다. 낙농조합들은 낙농가인 조합원을 위한다면 한우고기보다는 젓소고기 직관장을 만들어 소비자의 인식을 뒤바꾸어 놓아야 한다. 잘 비육된 수소를 도매시장에서 싸게 경락된 그대로의 값으로 판매한다면 어느 기간이 지나면 젓소고기 수요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일본에서는 낙농조합에서 화우고기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젓소고기를 취급하고 있고 젓소고기 취급조합들이 협의회까지 구성하여 젓소고기 이미지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 낙농조합으로 젓소를 기르고 있는 낙농가를 조합원으로 하고 있는 조합에서 조합원을 위하여 하는 사

업인 것이다.

4. 맺음말

UR이다. 수입개방이다. WTO다 하며 낙농육우산업이 당장 도산되는 것과 같은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낙농육우산업은 그간 오히려 호황이었으므로 낙농육우인들은 착각에 사로잡히게 하였다. 즉 우리나라의 낙농육우산업은 수입개방에도 끄덕도 하지 않는다는 신념이 마음 한 곳에 자리잡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금년 후반기부터는 서서히 이런 신념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충격이 극소화 되기를 바랄 뿐이다.

물론 그 영향이 우리 낙농육우산업에 미치지 않으면 더욱 좋겠지만 이는 우리의 기대에 불과하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외출타기와 같은 곡예를 하여야 한다. 사료값은 이미 인상했는데도 금년 중 또 인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사료업체며 쇠고기를 비롯한 유제품들은 속속 들어오고 있고 심지어는 더 빨리 우리 땅에 발을 부치기 위하여 온갖 짓을 다하고 있는 것이 수입개방압력국들의 한결같은 행동이다. 이 어려운 해를 맞는 우리 낙농육우인들은 단합하여 하나의 힘으로 외세에 대처하여 정책을 개발하여 우리나라의 낙농육우산업을 지켜야 하는 원년이 바로 금년이다.

낙농육우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995. 1.

(사) 한국낙농육우협회 임직원 일동